

6월4일 전국 120개 군법당 일제히 '호국영령 천도법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국 이래 모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비롯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을 위한 천도대법회가 4일 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열린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욱)는 군속단 주관으로 전국 각 부대 소속 120개 사단급 군법당에서 현역 불자장병과 예비역 장병, 공무원, 민간 신도 및 유가족 등 15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같은 시각, 같은 회순에 따른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국 차원에서 전례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또 시대별 승군별 부대별 사고별 모든 영가를 망라해 청혼, 천도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천도법회는 4일 오전 10시 전국 군법당에서 국군 법요절 전례에 의거해 봉행된다.

국군불교총신도회는 본 행사에

앞서 전쟁기념관 원형공장에서 진혼날이 연주되는 가운데 호국영령을 청혼한 뒤, 헌병대대의 호위 속에 국방분청 합참별관 등을 지나 호국원광사까지 영가위패를 이운한다. 영령 청혼 및 영단 이운은 전인구 장군(군불총 사무총장)이 총지휘한다.

전인구 사무총장은 "이번 천도법회는 호국영령을 진혼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편 국운 융창 및 군의 무사안전을 기원하고 장병의 호국외지와 안보결의를 고양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6월 한달을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게 기도하는 달'로 정한 국군불교총신도회는 이번 천도법회를 기념해 자체 개발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차량용 스티커 만5천개를 전국 부대에 보냈다.

캐릭터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군복을 입은 장병이 연등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귀한

넋과 그 넋을 천도하는 군복자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 16~17일에는 설악산 봉정암에서 국군 장병 무연장구를 위한 기도회도 열 계획이다.

군불총 조현봉 행정차장(중령)은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매년 정례화할 방침"이라며 "어법하고 정엄하게 봉행하면서도 불거리가 있는 천도재를 모색, 점진적으로 국민적인 행사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불교총신도회는 6월2일까지 개인 및 부대 단위의 개별 영가천도 신청을 받는다.

02)796-0230.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관음종 수련대회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관음종(총무원장 총파)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종단 연수원이 있는 천안 보명사에서 제34차 성직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혜웅 종정, 총파 총무원장, 법륜 종회의장, 동령 교육원장 등 종단

대덕 스님들과 전국 70여 사찰 주지 등 1백여 스님들이 참가하여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매일, 새벽 도량식부터 아침예불, 참선, 발우공양, 교육, 토론, 율력 등 모든 일정을 함께 하며 정진하였다. 또한 수련기간동안 총파 총무원장스님의 '관음종의 종풍과 종도들의 마음가짐' 등 종단 간부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경숙 기자

중국불교협 조박초회장 임직

30일 국장으로 영결식

종단협 조문단 파견

한·중·일 불교교류를 위해 헌신해온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사진)이 84세를 일기로 지난 21일 임직, 영결식이 30일 북경 팔보산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중국불교협회는 31일 광저우에서 추도법회를 봉행했다. 조 박회장이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혁명인로에 따라 국장으로 거행한 것이다.

중국불교협회의회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단장으로 조문단을 파견해 조 박회장의 명복을 빌고 지속적인 한중 불교교류의 뜻을 중국불교협회에 전했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총파스님은 "조 회장의 임직에도 불구하고 한중불교교류는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불교협회 후임 회장은 스님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박회장은 중국 문화혁명 시절 주요 사찰과 불교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친필취조를 보내 불교와 불교유적을 지켜냈으며, 특히 9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국불교교류를 강조해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산파역할을 했다.

조박초 회장은 안후이성 안경시 출신으로 동우(東吳)대학 졸업한



일부평에 나섰으며, 모택동 주석 당시 공산당 서열 4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방송 사장에

김규철씨 추천

불교방송 사장에 KBS이사인 김규철씨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불교방송 사장에 김규철 씨를 추천키로 결의했다. 이에 불교방송 재단사회는 6월 중순경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인준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추천 과정을 지켜본 진흥원

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장 추천은 3개월에 걸쳐 철저한 보안속에 7명 정도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신중히 결정됐다"며 "사장에 추천된 김씨는 91년 불교방송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방송 경력과 외부 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장 후보에 올랐던 김양일씨(前 울산일보 회장)는 사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불교방송 이사들과 조계종단의 스님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주일 기자

김재경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달라이라마 7월 방한 허용"

76개 불교단체, 정부에 강력 요청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8일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합의 끝에 달라이라마의 방한일정을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76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방한준비위원회는 이에따라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외교교통부에 보내고 "이번에도 방한을 불허한다면 정부의 굴욕외교에 맞서 국민적 항의에 나서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교통부는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을 오는 10월 아시아유형정상회의 즉 아비회의 이후에 논의하는 입장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준비위측은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다시 왔다 문화종교장관과 일본·동북아대교부의 전

김재경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사면 설문조사

회수율 극히저조

조계종의 종헌 개정 및 사면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총회 사무처는 22일 열린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추)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일까지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돼 1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설문조사지 회수 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 분석은 교계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2천여 스님 하안거 결제

불기 2544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각 선원은 18일 입제식을 갖고 오는 8월 14일까지 석달 동안의 하안거에 들어갔다.

이번 하안거에 조계종에서는 5개 총림을 비롯한 80여개 선원에 2천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했다. 태고종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20여명의 스님들이 입제식을 갖고 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은 이날 결제법어를 통해 영맹정진을 당부했다. (법어 전문 3면) 정성운 기자

'온겨레 평화대행진' 준비위 발족

토론회등 계획발표

온겨레평화대행진 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23일 서울경동문 천도교중앙교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온겨레평화대행진과 겨레대합창, 남북민간교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발표했다.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평화대행진은 6월 25일 대학로 특별무대에서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어린이와 전쟁피해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과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순회공

정성운 기자

정성운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협의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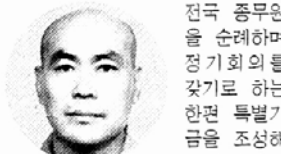
초대회장에 대은스님

태고종 산하 19개 전국 시도 교구 총무원장스님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종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협의할 '태고종 총무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일 태고종 서 울 총무처에서 창립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정대은 스님(인천총무원장·사진)이, 총무에 권백은(강원총무원장) 스님, 재무에 박성명(경기북부총무원장) 스님, 감사에 김철해(대전총무원장)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이경숙 기자



후진양성, 종단의 공적인 자문 지원활동 등에 쓰기로 했다.

중무원장협의회는 지금까지 종단 부회장에 박성수(충북총무원장)스님, 총무에 권백은(강원총무원장) 스님, 재무에 박성명(경기북부총무원장) 스님, 감사에 김철해(대전총무원장)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경숙 기자

남북정상회담 성취 및 국민화합 기원 대법회

2000년 새로운 세기, 남북정상회담 성취와 아울러 국민 대화합이 요구되는 이때, 통도사에서는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고 건립된 통일의 영험이 담긴 황룡사 9층목탑에서 출현된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남북통일의 바탕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리친견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황룡사의 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로부터 모셔온 사리로 통도사 금강계단의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온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 사리 이운식 및 대법회 ◆

- 일 시 : 2000년 6월 2일(음력 5월 초하루)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 법회안내 : 종무소 0523) 382-7182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 축 총 립 통 도 사 주 지 薪 虛 합 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전에서 불교공예의 정수를 만나 보고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하십시오.

이번 특별전은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친견할 수 있는 금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 관람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 (특별전 기간 중 휴관 없음)
- 행사안내 : 통도사성보박물관 전화 0523) 382-1001,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행사기간 동안 부산,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예약하시면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 河 합 장